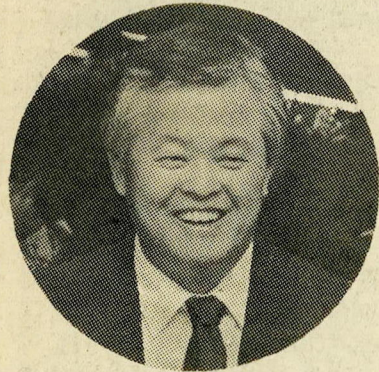


베를린 리포트

10



이태복

〈본지 창간위원장〉

쫄새지와 빵을 사들고 차에 올라탔을 때는 이미 세시가 다 되어서였다. 시내를 돌아나오면서 나는 자꾸만 뒤를 돌아다 보았다. 시야에서 멀어지는 예나의 풍경이 눈에 어른거려왔다. 떠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다시 되돌아가 집을 풀고 이 골목 저 골목을 기웃거리려 볼 수 없을까. 시간의 여유만 있다면 며칠만이라도 꼭 쉬고 싶었다. 모든 일거리와 사람들로부터 해방되어 출가분하게 산적한 현안문제를 정리해보자.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바람일 뿐이었다. 지난 20여년의 활동기간 내내 그러했던 것처럼 그런 '한가한 시간'은 나에게 주어질 수 없는 '꿈'이 아니었던가.

실천, 그리고 생각

박정희시대에 '일하면서 싸우자'는 관념이요가 듣기 싫도록 되풀이 될 때마다 나는 '싸우면서 생각한다'로 바꿔 들곤 했었다. 지금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실천하면서 생각하자. 며칠 쉬고 싶다는 말을 입속에 도로 삼킨 채, 정선생의 가지런한 이마를 바라보며 언젠가의 내일을 기약할 수 밖에 없었다. 차가 어느새 고속도로에 들어섰다.

시속 1백40km로 총알같이 달

선생부부의 아파트에 집을 풀고 식사도 거른 채 간담회장으로 곧바로 갔다. 라면을 들면서 심야까지 이어진 마복대 유학생들과 강연 및 질의응답 내용은 베를린에서와 마찬가지로 조국의 민주현실과 관련된 폭넓은 분야에 걸쳐 있었다. 나는 그들의 진지한 눈동자에 이끌려 장장 여섯 시간 동안 얘기를 주고 받았다. 대부분 사회과학전공자들인 이곳 유학생들은 '원전의 고장'까지 공부하러 와서 진리를 찾아 헤맸지만, 급격한 통독과 현존사회주의체제의 몰락이 엄청난 심리적 충격과 좌표상실을 가져와 이에 따른 심적 고통을 지니고 있는 듯이 보였다. 간담회가 끝난 뒤 한 유학생이 농담처럼 '한국노동문제의 구조나 '노동의 역사, 철학' 책을 보고 운동과 진리에 눈을 떠 독일까지 왔는데, 역사상황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데도 선배들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고 물어왔을 때는 정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씨뿌린 자가 거둔다는 말처럼, 씨를 뿌렸으면 그 생물이 제대로 자랄 수 있게 보살피고 모든 정성을 다해가꾸어야 한다. 그게 책임있는 자세가 아닌가. 물론 씨를 뿌린 것은 어느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그 시대의 역사 자체였다. 그러나 역사를 구성하고 다른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구체적 조건속에 있는 인간들이다. 나는 그때 무엇을 했고, 지금 시점에서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가. 좌담회분위기가 매우 유쾌했으나, 나는 늙고 싶었다.

보름의 한국노동자들

서독노동자 연2백3일 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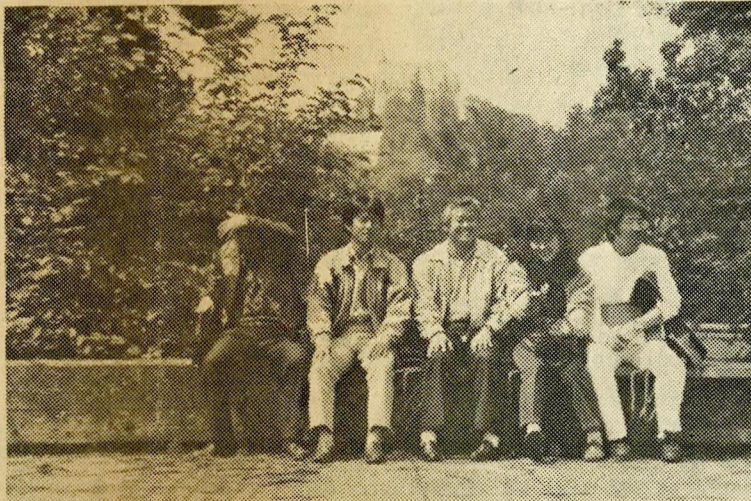
서독 노동자들의 상태

서 노동일을 시작했다. 몇년뒤 보름으로 나와 오펔자동차공장에 들어가 도장 직전의 공정에서 기능공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와 같은 보통 서독의 금속노동자들은 나이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 대개 31일동안의 유급휴가와 년 13일의 국경일 휴무, 평균 12일의 병가, 5일의 교육휴가, 1백4일의 주말로 일년 평균 2백3일동안 일을 했다. 밥소사, 우리나라 노동자가 평균 2백90일정도 일하고 있으니 그들은 한해에 85여일을 더 쉬고 있다! 한 주 38.5시간제가 시행중이므로 3교대사업장(오전 6~오후2시, 오후2시~10시, 오후10시~새벽6시)인 오펔공장의 노동시간은 30분 식사시간이 노동시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7시간30분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중간에 10분씩 3회 휴식하므로 평균 25분을 휴식시간으로 잡아, 실노동시간이

실정인 아닌가. 그렇다면 주간에 23시간을 우리노동자들이 더 일한다!

세금이 많다

이렇게 주5일 일해서 매월10



마복대학 데페교수와 대담을 끝내고 교정에서.

이지만 병가의 경우를 들어보면, 평균 12일을 쓸 수 있으나, 보통 연평균 5~6주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하루에 회사의 노동자 20%정도가(1만8천명중 3천6백명) 휴무를 취하고, 요양신청을 하면 3년 동안에 유급으로 5주씩 허용된다. 물론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되지만,

이상 장기근속 노동자의 경우 1백%추가지급을 받고, 10년근속마다 1백마르크를 더준다. 주택은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임대주택(평균적으로 35~40평규모)에서 살지만, 주택구입시 은행돈을 빌려쓰기는 아주 쉬워서 허장랑씨의 맨션급 주택도 싼 은행돈과 저축금으로 구입했다. 신입노동자들의 초임은 총액 3천4~5백마르크(약1백50만원), 실수령액 2천2~3백마르크(955만원)정도를 받고 있다.

생활에 대체적으로 만족

최근에 오펔자동차공장에서 도요다시스템도입을 통한 노동강도를 강화하려고 한다던지, 통독이후 의료보험료가 늘어나고, 임대주택에 사는 동료들은 임대료인상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만, 허씨 자신은 대개의 맞벌이 노동자 부부들처럼 생활에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편이다. 특히 한국과 달라서 아이들의 교육비

하기 때문에 일량이 매우 많아진 편인데, 그래도 한국인여성 간호원들의 경우는 비교적 평판이 좋은편이라고 말했다. 노인환자들을 잘 모시고 굿은 일도 잘하기 때문에 어느 병원이든 한국인간호원을 환영한다는 것이다.

여성노동자 보호제도 발달돼

그녀가 일하는 엘리자베스병원은 가톨릭계통의 병원인데, 4개의 직급에, 9호봉씩(2년에 1호봉 승진, 1호봉당 70마르크)돼있고 새벽 6~오후1시, 오후 1시~8시, 오후8시~새벽6시까지 근무하는 3교대 근무였다. 주간반의 경우는 격주로 근무하고, 야간반은 한달 16일 일한다. 출근카드 제도는 아직 없고, 인수인계시간은 보통 15분정도 계산한다. 간호원과 보조원의 직무차이는 기본업무에서 동일하지만 직종에 따라 50마르크정도 봉급차이가 있고 마취나 수술같은 전문직의 경우는 1직급을 추가해서 50마르크를 더 받는다. 또 혈관주사 등의 업무는 없는 대신 근육과 피하주사의 일은 한다.

여성노동자이기 때문에 산전6주, 산후8주는 월급의 1백%를 그대로 받고 산후1년까지는 본봉만 받는다. 모든 여성노동자들은 어떤 종류의 임신이든 임신중해고당하지 않게 되어있다. 또 부인의 출산시에도 남편이 휴가를 받는다. 반면에 혼인휴가는 2일뿐이고, 직계존비속의 큰일에는 하루만 휴무할 수 있다.

반면에 진단서를 첨부해서 육아간호를 신청할 경우 5일까지, 어린이 세례식, 이삿날, 결혼 25주년, 은혼식은 각기 1일씩 휴무를 취할 수 있게 돼있다.

(다음호에 계속)

사회보장제 확대로 생활여유 있으나 노동자의식 후퇴해

금속노동자들 주 35시간제 쟁취, 다른 산별에도 영향미쳐

7시간×5일=35시간이 된다. 따라서 실노동시간이 35시간이므로 주중에 3.5시간을 보충해서 노동한다. 우리는 어떠한가. 산업과 철야는 예사로 있는 일이고, 주간당 공식통계로는 53.4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돼있지만, 그 자료는 보고한 노동시간을 평균한 것에 지나지 않고 실노동시간은 평균58시간이 넘는 것이 우리의

일날 은행에서 인출할 수 있도록 봉급이 지급되는데 그의 봉급이 총액4천2백45마르크(1백82만원)이고 실수령액은 2천6백82마르크(약 1백15만원)이다. 공제내역을 보면 근로소득세 30여만원, 건강보험료 10여만원, 연금 16만원, 실업보험료 6만원, 조합비 1만2천원으로 돼있다.

공식적인 통계들은 이런 정도

회사측이 조사해볼 필요가 있을 경우 회사측 의사의 검진을 거부하지 못하고, 검진결과로 복귀명령을 받았을 때는 작업장에 복귀해야 한다. 주부들의 경우에는 평균 5~6주 정도를 휴양비를 받고 추가로 휴무할 수 있는 여성보호제도도 마련돼있다.

또 정년은 얼마전까지 64세였는데, 최근 60세로 줄었고, 25년

가 전혀 들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큰 걱정거리가 없다면서 조국의 민주화와 한국노동자들의 노동운동, 통일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그는 언젠가는 한국에 돌아가서 살겠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의 부인인 장영숙씨는 간호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다. 독일어 성들이 힘든 직종인 병원을 기피